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19.(화) 16:00
(지면) 2026. 5. 20.(수) 조간

윤호중 장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현장 및 사용처 방문

- 지원금 신청부터 지급,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 불편 없도록 당부
- 지역생협, 주유소 등 인근 사용처를 찾아 민생 현장 애로사항 청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둘째 날인 5월 19일(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인근 사용처를 방문하여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윤 장관은 문래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접수 창구 및 접수 시스템, 선불카드 물량 등 창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신청 인원이 1차 대비 크게 증가하는 만큼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이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더워지는 날씨에 지역 주민들이 대기하는 동안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실내 대기공간과 안내 인력이 확보되었는지 점검하고,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을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아파트 승강기나 SNS 채널 등 주민 밀착형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하고, 취약계층 국민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등을 통해 더욱 촘촘히 관리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으로, 윤 장관은 인근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과 주유소 등 지원금 사용처를 방문하여 고유가·고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역 주민의 사용편의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지 등을 고려해 지역 생협 매장과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인근 지역생협 매장에서는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 및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가치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지원금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유소 현장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며 사용처에 대한 홍보를 독려하는 한편, 고유가 부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 등을 경청하였다. 윤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지에 따라 주유소 사용처를 예외적으로 확대한 만큼 유류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인 국민 한 분 한 분께서도 필요한 곳에 기한 내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히면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경 (044-205-3702)
		담당자	서기관	조석훈 (044-205-3727)

